

〈漢書雜誌〉 「連語」와 《漢書》 文章의 한 特徵에 對하여

李 鍾 漢*

— <目 次> —

I. 序 論	IV. 「連語」와 《漢書》 文章의 特徵
II. 〈漢書雜誌〉의 考證類型 및 方法	V. 結 論
III. 〈漢書雜誌〉 「連語」의 類型 分析	

I. 序 論

중국산문은 先秦 시기, 특히 B. C. 5C중엽에서 3C중엽(春秋末-戰國末)까지 약 200여 년간 ‘紀事’와 ‘立言’의 두 표현양식을 근간으로 하여 최고조의 발전을 이루었다. 散體單行의 자유로운 형식을 行文의 기본틀로 하여 높은 성취를 이룩한 先秦散文은 漢代에 들어와 辭賦文學의 발달과 美文意識의 맹아를 거치면서 문장언어의 표현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를 수반하기 시작했다.

東漢代에 들어와 ‘文章’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고 西漢代의 賈誼(201? ~ 168 B. C.)· 司馬遷(145?~86 B. C.)· 司馬相如(179~ 117 B. C.) 등의 산문 작가와 辭賦 작가가 모두 ‘文章家’로 지목된 것과 궤를 같이하여 중국문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산문사가들은 이런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先秦에서 西漢까지 散體單行을 주축으로 하던 중국 문장이

* 啓明大學校 外國語文學大學 中國語文學科 教授

東漢을 기점으로 하여 駢體偶行的 양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현상은 서한 시기에 나온 사마천의 《史記》와 동한 시기에 완성된 班固(32~92)의 《漢書》라는 두 史書의 행문 차이에 잘 반영되어 있다.

王念孫은 《逸周書》·《戰國策》·《史記》·《漢書》·《管子》·《晏子春秋》·《墨子》·《荀子》·《淮南子內篇》·《漢隸》와 《後漢書》·《老子》·《莊子》·《呂氏春秋》·《韓子》·《法言》·《楚辭》·《文選》 등의 고서에 나타난 오류를 교감하고 전인의 잘못된 주석을 바로잡아 《讀書雜誌》라는 대표적 저술을 남기고 있다.¹⁾ 그런데 이 84권(正編 82卷, 餘編 2卷)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에서 중국 문장어의 변천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漢書雜誌>의 마지막 권에 별도로 독립하여 설정한 「連語」이다. 즉 여타 부분이 모두 원서에 쓰인 문구 내지 표현 자체를 소제목으로 늘어놓고 많은 근거자료를 끌어와 교감과 의미 변석을 시도한 것인데 반해, 이 경우만은 「連語」라는 한 권의 제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붙이고 있다. 필자는 왕념손이 <한서잡지>에 한해 특별히 이런 표제를 내걸고 교감과 의미 변석을 한 것에 주목하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 뒤 그 기초 위에서 《한서》 문장의 한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漢書雜誌>의 考證類型 및 方法

《讀書雜誌》는 《廣雅疏證》 및 《詩經群經楚辭韻譜》와 함께 청대 乾嘉學派의 주요 인물인 왕념손(1744~1832)의 대표적 저서이다. 건가학파는 惠棟을 중심으로 하여 漢代 儒學者들의 經說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吳

1) 엄밀히 말하면 《後漢書》·《老子》·《莊子》·《呂氏春秋》·《韓子》·《法言》·《楚辭》·《文選》 등에 대한 고증 및 훈고 작업은 그의 아들인 王引之가 이어서 보완한 것으로, 《讀書雜誌·餘編》 2권에 들어 있다.

派와 戴震(1723~1777)을 으뜸으로 하여 《三禮》 중의 명물·제도의 고증을 중시하는 데서 출발한 ‘皖派’로 크게 나누어진다. ‘완파’는 문자·음운을 통해 古書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뜻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방면에서 그 학문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영수적인 대진은 친문·역법·산학·지리·음운·문자·훈고 등 다방면에 걸쳐 조예가 깊은 고증학의 권위자이다. 왕념손은 段玉裁(1735~1815)와 그의 아들인 王引之(1766~1834)와 함께 대진의 제자로서 스승과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왕념손은 중국언어학사상 단음제와 함께 字形만을 중시하고 字音を 경시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訓詁學 방면에 혁신적인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²⁾ 이를테면, 단음제는 “경전을 공부하는 데는 뜻을 터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뜻을 터득하는 데는 소리를 아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³⁾고 하여 훈고에 있어 字音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왕념손도 “지금은 고대의 음가를 가지고 고대의 뜻을 구해 그것을 확대하여 유추하고 글자의 모양에 국한되지 않았다”⁴⁾고 하여 글자의 형태보다는 음가를 중시하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독서잡지》는 왕념손이 67세의 노년에 編訂한 저서⁵⁾로 교감과 훈고 방면에 관한 저자의 탁월한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이 책이 왕념손 훈고학의 대표적 저서로 손꼽히고 있는 《광아소증》이 완성된 지 약 20년 뒤에 편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여러 해에 걸쳐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완숙기에 접어든 노학자의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이 총동원되었으리라는 짐작이 들어간다.

1. 考證類型

왕념손이 고서를 읽으면서 고증을 하게 된 단서는 대체로 글의 뜻이 잘

2) 王力 著, 李鍾振·李鴻鎮 共譯, 《中國言語學史》(계명대출판부, 1983), 247쪽.
3) 段玉裁, 《廣雅疏證·序》: “治經莫重於得義, 得義莫切於得音.”
4) 王念孫, 《廣雅疏證·自敘》: “今則就古音以求古義, 引伸觸類, 不限形體”
5) 王念孫, 《讀書雜誌》(北京 中華書局 1991. 10), <說明> 부분 참조

통하지 않는 경우 6), 구법이 불완전한 경우 7), 어휘의 구성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8)의 세 부류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문맥의 의미가 통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고증을 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단서에서 출발하여 시작한 왕념손의 《한서》에 대한 고증은 대체로 여섯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誤字辨正’으로 轉寫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지적하여 바로 잡은 것이다. 오지는 통상 전사과정에서 앞뒤 글자나 주석의 문장에 연루되어 잘못된 경우, 후대 사람이 옛 뜻이나 옛 글자를 모르거나 마음대로 고친 경우, 다른 서적에 의거하여 잘못 고친 경우, 字形이나 書體가 유사하여 생긴 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⁹⁾

둘째, ‘脫字辨正’으로 전사과정에서 전사자의 실수 또는 무지로 인하여 빠뜨린 글자를 찾아내어 보충한 것이다. 즉, 이 유형은 전사자가 자형이 비슷한 연유로 빠뜨리거나 그 글자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로 인해 의도적으로 산거해버린 경우가 많이 눈에 띈다.

셋째, ‘衍字辨正’으로 전사과정에서 첨가된 불필요한 글자를 찾아내어 산거한 것이다. 연자는 후대 사람이 다른 서적에 의거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덧붙인 경우도 있지만, 앞뒤 문장이나 주석의 글자가 잘못 끼어 든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넷째, ‘顛倒字辨正’으로 전사과정에서 글자의 순서가 뒤바뀌어 문맥이 잘 통하지 않아 바로잡은 경우인데, 그다지 많이 보이는 예는 아니다.

6) 이 부류에 해당하는 것은 “義不相屬”, “義不可通”, “文義不明”, “文義不暢”, “文義不貫”, “文義不順”, “語義不暢”, “語義不完”, “不成文理”, “義無所取”, “義既不明”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7) 이 부류에 해당하는 것은 “句法不協”, “句法參差”, “句又不安”, “句法局促不伸”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8) 이 부류에 해당하는 것은 “累於詞矣”, “贅於詞矣”, “於文爲不詞”, “爲不詞矣”, “殊爲不詞”, “殊爲不類”, “詞不達意”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9)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涉上下文而誤”, “涉注文而誤”, “後人以意改之”, “後人不知古義而改之”, “後人不識古字而妄改之”, “後人依《孟子》而改之”, “後人依《毛詩》而改之”, “字形相似而誤”, “草書相似而誤”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섯째, ‘句讀辨正’으로 문장의 끊어 읽기를 잘못하여 문맥이 통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은 것인데, 매우 드물게 보이고 그것도 주로 다른 유형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여섯째, ‘字義辨釋’으로 《漢書》에 대한 종래의 주석 중에서 그 옳고 그름을 가려 해석한 것인데, ‘오자변정’과 함께 가장 많이 보이는 고증의 유형이다. 즉 顏師古(581~645)를 중심으로 한 제가의 주석에 나타난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古字와 古訓 및 聲韻에 관한 지식을 두루 동원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其陰賊著於心本發於睚眦]

내가 살펴보건대 안사고가 ‘陰賊著於心本’으로 단구를 하고, ‘心本을 ‘本心’으로 풀이한 것은 이른바 억지 해석이다. 지금 살펴보건대, 마땅히 ‘其陰賊著於心’으로 단구를 해야 하며 ‘本은 마땅히 《사기》에 의거하여 ‘卒’자로 쓰고 ‘卒’자는 아래 구절에 붙여야 한다. ‘卒은 ‘終과 같으니 그의 마음속에 음험하게 남을 해칠 뜻이 있어 마침내 흘겨보는 눈초리에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예시체에서 ‘本’자는 혹 ‘卒’로 쓰고 ‘卒’자도 혹 ‘卒’로 쓰기도 하는데, 둘의 형태가 비슷하므로 ‘卒’이 ‘本’으로 잘못되었다.¹⁰⁾

이 조목에서 왕념손은 안사고가 ‘本’자가 ‘卒’자의 오자임을 살피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단구까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고증하고 있다. ‘句讀辨正’과 ‘誤字辨正’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예이다.

2. 考證方法

청대 고증학은 ‘實事求是’¹¹⁾, 즉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10) <漢書雜志>14-15b(《漢書》92·<游俠傳>)에 나오는 예문): “[念孫案]師古斷‘陰賊著於心本’爲句, 而訓‘心本’爲‘本心’, 所謂強解者也. 今案當以其陰賊著於心爲句, ‘本’當《史記》作‘卒’, ‘卒’字下屬爲句. ‘卒’, 猶終也. 言其陰賊在心, 而終發於睚眦也. 隸書‘本’字或作‘卒’, ‘卒’字或作‘卒’, 二形相似, 故卒譌爲本.”

학문의 방법론으로 내세운 바 견실하고 증거를 중시하는 객관적이고 귀납적인 태도를 그 생명으로 삼았다. 왕념손은 바로 청대 고증학이 본 궤도에 올라선 乾嘉學派의 주요 학자로서 이런 학문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서잡자>에 나타난 그의 고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漢書》의 다른 판본과 다른 부분의 주석 및 《한서》를 인용한 기타 여러 古書를 끌어와 고증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초보적인 수단이지만 나름대로 가장 확실한 사실 근거로서의 판본을 금과옥조로 활용한 경우이다.

둘째, 문자·성운·훈고 및 구법·음률 등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동원하여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해줄 수 있는 여러 서적의 인용을 곁들여 고증한 것이다.

좀더 과학적이고 발전된 고증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를 하나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作鳴鏑]

내가 살펴보건대 ‘作’ 아래에 원래 ‘爲’자가 있었다. 후대 사람이 ‘爲’가 곧 ‘作’이라고 여기고 ‘爲’자를 산거하였는데, 옛 서적에서 ‘作爲’라고 한 것이 많음을 알지 못한 때문이다. 《通鑑》의 <漢紀>3에는 이미 ‘爲’자가 빠져 있다. (그러나) 《文選》에 실린 左思의 <詠史詩> 주석, 曹植의 <名都賦> 주석, 陸機의 <從軍行> 주석, 張協의 <七命> 주석, 邱遲의 <與陳伯之書> 주석, 顏延之의 <陽給事誄> 주석 등 여섯 곳에서 《한서》를 인용하여 모두 ‘作爲鳴鏑’으로 쓰고 있다. 《사기》도 마찬가지이다.¹²⁾

11) ‘實事求是’는 흥미롭게도 본래 《漢書》53·<景十三王傳·河間獻王>條에 처음 보이는 용어이다. “河間獻王德以孝景前二年立, 修學好古, 實事求是”

12) <漢書雜志>14·19b(<漢書>94上·<匈奴傳>上에 보이는 예문): “念孫案 作下原有‘爲’字. 後人以‘爲’卽是‘作’, 故刪去‘爲’字, 不知古書言‘作爲’者多矣. 《通鑑·漢紀三》已脫‘爲’字. 《文選》左思<詠史詩>注, 曹植<名都篇>注, 陸機<從軍行>注, 張協<七命>注, 邱遲<與陳伯之書>注, 顏延之<陽給事誄>注. 六引《漢書》皆作‘作爲鳴鏑’. 《史記》同.” 《史記·秦本紀》에 “夫自上聖黃帝作爲禮樂法度”란 표현이 보인다.

이는 ‘作爲’라는 詞語가 古書에 이미 많이 쓰였다는 어법 지식을 논거로 내세워 ‘爲’자가 譌脫되었다는 점을 고증한 것으로, 논거를 뒷받침할 만한 고서의 방증 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물론 <한서잡지> 에도 별다른 논거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고¹³⁾,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고증한 곳¹⁴⁾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서잡지>는 실사구시적인 근엄한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고증을 해냄으로써, 《한서》 읽기의 지평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그런 가운데서 「連語」를 별도의 한 권으로 독립 설정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이르렀다.

Ⅲ. <漢書雜志> 「連語」의 類型 分析

<한서잡지>의 마지막 부분인 제16권에는 《한서》 전편에 걸쳐 나타난 「언어」의 문제를 별도로 독립시켜 거론하고 있다. 왕념손은 먼저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체로 언어의 글자는 모두 상하가 같은 뜻이라서 나누어 풀이할 수 없는데도, 해설하는 사람들이 글자를 바라보고 뜻을 만들어내어 왕왕 견강부회하여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렸다.¹⁵⁾

여기에서 왕념손이 「언어」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두

- 13) <漢書雜志>13·27a의 ‘述述’(往往)條에서 그것의 字義를 해설한 應劭·顏師古·李善 세 사람의 주석을 놓고 아무런 보충 설명이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채, 李善의 해설이 옳다는 단정을 내린 것이 그 예이다.
- 14) <漢書雜志>13·21a에서 왕념손이 단옥제의 해설을 계승하여 漢代 사람 ‘揚雄’의 ‘揚’자는 ‘楊’으로 고쳐야 한다고 고증한 경우가 그 예인데, 王力은 王先謙이 《漢書補注》에서 말한 “揚楊字同”을 근거로 글자가 같으니 고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李鍾振·李鴻鎮 共譯, 앞의 책 22쪽 참조.
- 15) <漢書雜志>16·1a: “凡連語之字, 皆上下同義, 不可分訓 說者望文生義 往往穿鑿, 而失其本指”

글자가 “上下同義”라고 한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양자를 서로 분리하여 따로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언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말한 ‘連語가 현대 어휘론에서 말하는 ‘聯綿詞의 개념에 상당히 접근함을 알 수 있다. 연면사는 두 개의 음절이 연합하여 하나의 뜻을 이루고 분할할 수 없는 單純複音詞로, 두 글자가 雙聲이나 疊韻 또는 雙聲兼疊韻이나 疊字의 관계를 이룬 경우가 절대 다수이고, 그러한 음성적 유사성이 없는 경우도 소수 있다. 또한 연면사는 이처럼 중점이 음성에 있기 때문에 자형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글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쪼여지는 현상도 두드러진다.¹⁶⁾

왕념손이 <한서잡지>에서 연어의 용례로 제시한 것은 모두 다음의 23개이다. 즉, ‘유이(流馳)’·‘교건(橋虔)’·‘분제(奔蹏)’·‘노래(勞俵)’·‘능이(陵夷)’·‘의표(儀表)’·‘저사(狙詐)’·‘영어(罔圉)’·‘제봉(提封)’·‘무려(無慮)’·‘고각(辜榘)’·‘양각(揚擄)’·‘침심(寢尋)’·‘영혹(營惑)’·‘감개(感夥)’·‘괴오(魁梧)’·‘괴안(魁岸)’·‘유락(留落)’·‘낭려(狼戾)’·‘옥설(奧濶)’·‘위천(尉薦)’·‘온자(醞藉)’·‘경악(驚鄂)’ 등이 바로 그것인데, 개중에는 위에서 말한 연면사의 두 가지 특성이 잘 드러나는 용례도 다소 보인다.

1. 雙聲

주지하다시피 쌍성은 연면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음운 현상의 하나이다. 왕념손이 <한서잡지> 「연어」의 논증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쌍성자라고 밝힌 경우로, 먼저 ‘노래(勞俵)’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李永朱 교수는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연면자가 여러 가지인 언어현상은 동일한 어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형이 사용된 경우와 연면자의 어음에 변화가 생겨 그 변화된 어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자형이 변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古漢語同義語研究》(서울대 문학박사 학위논문, 1991), 186-187쪽 참조.

<宣帝紀>에 “지금 膠東國의 재상인 王成이 (유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애쓰고 게을리 하지 않자 외지를 유랑하는 백성들로서 스스로 보고하고 안주한 사람이 8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 데 대해 顏師古가 “‘勞來’는 위로하고 권면하여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또 <平當傳>에 “(평당이) 사명을 받들고 幽州로 가서 유랑하는 백성들을 순시하였는데, 刺史와 二千石으로 외지를 유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애쓴 공적이 있는 이들을 다 들어 상주하였다”고 한 데 대해, 안사고가 “‘勞來’는 권면하는 것을 말한다. ‘勞’는 ‘그 부지런히 애쓰는 것을 위로한다’는 뜻이고, ‘來’는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오게 한다’는 뜻이다”고 했다. 내가 살펴보건대 ‘勞來’는 쌍성자로 ‘來’ 또한 ‘勞’의 뜻인데, 글자가 본래 ‘勸’로 씌어졌다. 《설문》에서 “‘勸’은 ‘勞勸’의 뜻이다”고 했다. 경진이나 역사서에서 통용하여 ‘來’로 쓰기도 하고 ‘來’로 쓰기도 했다. ‘勞來’ 두 글자는 ‘권면하다’로 풀이한 것도 있고, ‘사랑하여 부지런히 애쓰다’로 풀이한 것도 있다. ……<선제기>의 ‘勞來’는 아랫글의 유랑하는 백성 8백여 명에 대해 말한 것이고, <평당전>의 ‘勞來’도 윗글의 유랑하는 백성들을 순시하였다는 것을 이어서 말한 것이니 모두 ‘사랑하여 부지런히 애쓰다’는 뜻이다. 안사고가 ‘권면하다’고 풀이한 것은 이미 그 뜻을 상실하였고, 또 ‘來’를 ‘招來’로 여겨 ‘勞와 ‘來’를 두 가지 뜻으로 분리시킨 것은 더욱 그 뜻을 상실한 것이다.¹⁷⁾

왕념손은 ‘勞來’가 ‘쌍성자’로서 두 글자가 同義의 관계에 있으므로 ‘勞’를 ‘그 부지런히 애쓰는 것을 위로한다’(恤其勤勞)로 ‘來’를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오게 한다’(以恩招來)로 따로 분리시켜 서로 다른 의미로 풀이한 顏師古의 주석은 잘못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의 변

17) <漢書雜志>16-2a: “<宣紀>: ‘今膠東相成勞來不怠, 流民自占八百餘口’ 師古曰: ‘勞來者, 言慰勉而招延之也.’ 又<平當傳>: ‘使行流民幽州, 舉奏刺史二千石勞休有意者.’ 師古曰: ‘勞來, 謂勸勉也, 勞者, 恤其勤勞, 來者, 以恩招來之.’ 念孫案: 勞來, 雙聲字, 來, 亦勞也, 字本作勸. 《說文》曰: ‘勸, 勞來也.’ 經史通作來, 又作來. 勞來二字, 有訓爲勸勉者, 有訓爲恩勤者. ……<宣紀>之勞來, 對下文流民八百餘口而言, <平當傳>之勞來, 亦承上文行流民而言, 皆是恩勤之義. 師古訓爲勸勉, 已失其指. 又以來爲招來, 而分勞來爲二義, 愈失之矣.” 여기서 <宣紀>는 《漢書》8의 <宣帝紀>이고, <平當傳>은 《漢書》71의 <雋疏于薛彭傳>이다

다함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였지만, 連語로서의 ‘勞俵가 지니는 의미를 ‘권면하다’(勸勉)와 ‘사랑하여 부지런히 애쓰다’(恩勤)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예를 적시한 뒤 이 두 경우에는 문맥상 후자의 풀이가 더 적절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전자의 의미로 쓰여진 예로는 《孟子·滕文公》·《漢書·成帝紀》·《漢書·龔遂傳》을 들고, 후자의 의미로 쓰여진 예로는 《爾雅》와 《詩經·小雅·大東》의 《毛傳》과 《毛詩正義》 및 《詩經·小雅·采芣序》·《詩經·小雅·鴻鴈序》를 들었다. 《漢書》의 <平當傳>에서는 ‘勞俵, <宣帝紀>에서는 ‘勞來로 달리 써어져 있는데 이는 바로 자형이 고정적이지 않는 연면사의 속성을 잘 나타내며, 이 연어가 《한서》에서 꽤 여러 차례 사용된 점도 확인된다.

‘낭려(狼戾)’의 일례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嚴助傳>에 “지금 閩越王이 사납고 어질지 않다”고 한 데 대해, 안사고가 “이리는 성질이 탐욕스럽고 사납다. 대체로 ‘狼戾라고 한 것은 탐욕스럽고 사나운 것을 말한다”고 했다. 내가 살펴보건대, 안사고가 ‘狼을 ‘豺狼’(이리)의 뜻)의 ‘狼으로 여긴 것은 잘못이다. ‘狼도 ‘戾의 뜻이다. ‘戾자는 간혹 ‘齧로 써어지기도 하였다. 《廣雅》에서 “狼과 戾는 ‘사납다’(很)는 뜻이다”고 하고, 또 “狼과 很은 ‘사납다’(齧)는 뜻이다”고 했다. 이는 ‘狼’과 ‘戾’가 같은 뜻을 말한 것이다. …… 오직 <吳都賦>에서만 “그 용맹스러운 것을 헤아리면 수리같이 표독하고 이리처럼 사납다”고 하여 ‘狼戾’와 ‘鸞悍’을 상대적인 위치에 놓아 처음으로 ‘狼을 ‘豺狼의 ‘狼으로 오인하였다. ‘狼戾’가 바로 쌍성자이므로 두 가지 뜻으로 나눌 수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만약 이리처럼 사납다라고 할 것 같으면 “풍년이 든 해에 곡식 낱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고 한 것은 장차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¹⁸⁾

18) <漢書雜志>16-7a: “<嚴助傳>: ‘今閩越王狼戾不仁.’ 師古曰: ‘狼性貪戾, 凡言狼戾者, 謂貪而戾’ 念孫案 師古以狼爲豺狼之狼 非也 狼亦戾也 戾字或作齧 <廣雅>曰: ‘狼·戾, 很也’ 又曰: ‘狼·很 齧也’ 是狼與戾同義 …… 惟<吳都賦>曰: ‘料其虓勇, 則鸞悍狼戾’ 狼戾與鸞悍相對, 則始誤以狼爲豺狼之狼矣 不知狼戾乃雙聲之字, 不可分爲二義 若必謂如狼之戾, 則樂歲粒米狼戾, 將何說乎?” 여기서 <嚴助傳>은 《漢書》64· 위에 들어 있고, <吳都賦>는 《文選》5에

KCS I

실려 있다.

본 논의의 핵심 내용은 ‘狼戾’가 同義 관계에 있는 쌍성자이므로, 그 두 글자를 분리하여 ‘이리처럼 사납다’는 뜻으로 풀이한 안사고의 주석은 오류임을 논증한 것이다. 즉 왕념손은 《廣雅》를 끌어와 ‘狼’과 ‘戾’가 同義詞라는 근거를 밝히고, 위의 인용에서 생략하였지만 《戰國策·燕策》·《淮南子·要略》과 《文選》의 <洞簫賦>·<長笛賦> 등의 용례를 끌어와 그 논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사고와 같은 잘못된 풀이가 《文選》에 실린 左思(250~300)의 <吳都賦>에서 ‘狼戾’와 ‘鵬悍’을 상대적인 위치에 놓고 쓴 데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고, 《孟子·滕文公上》에 나오는 “樂歲粒米狼戾”를 끌어와 ‘狼’을 ‘豺狼’의 ‘狼’으로 풀이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임을 덧붙이고 있다. 《孟子·滕文公上》의 ‘狼戾’는 ‘낭자(狼藉)’와 같은 뜻의 연면사로, ‘이리’(狼)라는 뜻의 흔적이 없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분명하다.

이밖에 쌍성자의 예로 왕념손이 분명히 밝힌 것으로는 ‘고각(辜榘)’과 ‘유락(留落)’이 있고, 그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감개(感鬯)’도 이 범주에 드는 용례이다.

2. 疊韻

첩운 역시 쌍성과 함께 연면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운 현상의 하나인데, 왕념손이 <한서잡지> 「연어」조에서 명시적으로 첩운자라고 한 용례는 두 개이다. 먼저 ‘狙詐’의 용례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諸侯王表>에 “秦나라는 형세가 우월한 지리적 위치를 점거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군사적 수단을 펼쳤다”고 한 데 대해, 應劭가 “狙는 ‘엇보다’는 뜻으로 틈을 타서 엿보고 출병하는 것이다. ‘狙’는 음이 ‘저(蠅)’와 같다”고 했다. 내가 살펴보면 응소가 ‘狙’와 ‘詐’를 두 가지 뜻으로 분리시킨 것은 잘못이다. ‘狙詐’는 첩운자로, ‘狙’ 또한 ‘詐’의 뜻이다. …… <敍傳>에 “吳起와 孫武는 간사 교활하고 申不害와 商鞅은 형벌이 엄준하고 간악하였다”고 했는데, ‘狙詐’가 같은 뜻이고 ‘酷烈’이 같은 뜻인 것이 그 명백

한 증거이다.¹⁹⁾

이는 ‘狙詐’가 同義관계에 있는 첩운자이므로, 그 두 글자를 분리하여 풀이한 應劭(178년 전후 在世)의 주석이 오류임을 논증한 것이다. 즉 왕 넘손은 <荀子·大略篇>과 楊倞의 주를 끌어와 ‘狙’·‘狙’·‘狙’가 同義로 모두 ‘詐’의 뜻임을 규명하여, ‘狙詐’의 ‘狙’를 ‘엇보다’(伺)는 뜻으로 풀이한 것이 오류임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나서 <敍傳>에 나란히 對句로 쓰인 ‘狙詐’와 ‘酷烈’이 각각 두 글자끼리 同義라는 사실 관계에 있음을 예시하여 그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다.

‘無慮’의 경우를 하나 더 보면 다음과 같다.

<食貨志>에서 “천하 사람들이 대체로 대략 모두 위조 주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 데 대해, 안사고가 “‘大氏’는 ‘대체로’(大凡)라고 하는 것과 같다. ‘無慮’도 ‘대략 소소하게 헤아림이 없는 것’을 말할 따름이다”고 했다. ‘無’는 글자를 ‘亡’(무)로 쓰기도 한다. <趙充國傳>에서 “대략 만 이천 명이다”고 한 데 대해, 안사고가 “‘亡慮’는 ‘크게 헤아리다’(大計)는 뜻이다”고 했다. 내가 살펴보면, 안사고가 ‘無慮’를 ‘大計’로 여긴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또 ‘소소하게 헤아림이 없다’(無小計慮)고 했으니, 이는 ‘無’를 ‘有無’의 ‘無’로 여기고 ‘慮’를 ‘計慮’의 ‘慮’로 여긴 것인바 그 잘못됨이 심하다. 지금 살펴보면, ‘無慮’는 첩운자로 ‘慮’는 예전에 ‘閭’와 같이 읽었다. <溝洫志>에서 “물이 왕성하고 광대하여 대략 다 황하가 되었다”(慮殫爲河)란 것이 있는데, <河渠書>에는 ‘慮’가 ‘閭’로 찍어져 있다.²⁰⁾

19) <漢書雜志>16-3a: “<諸侯王表>: ‘秦據勢勝之地 騁狙詐之兵’ 應劭曰 ‘狙 伺也, 因問伺隙出兵也. 狙音若蛆’ 念孫案 應分狙詐爲二義 非也 狙詐 疊韻字 狙, 亦詐也. …… <敍傳>曰: ‘吳孫狙詐, 申商酷烈’ 狙詐同義 酷烈同義 是其明證矣.” 여기서 <諸侯王表>는 <漢書>14, <敍傳>은 <漢書>100·下이다.

20) <漢書雜志>16-3a: “<食貨志>: ‘天下大氏無慮皆鑄金錢矣.’ 師古曰: ‘大氏 猶言大凡也 無慮 亦謂大率無小計慮耳.’ 無字或作亡. <趙充國傳>: ‘亡慮萬二千人.’ 師古曰: ‘亡慮 大計也.’ 念孫案 師古以無慮爲大計是也 而又云無小計慮 則是以無爲有無之無, 慮爲計慮之慮 其失甚矣 今案 無慮 疊韻字也 慮 古讀若閭 <溝洫志>: ‘浩浩洋洋, 慮殫爲河’ <河渠書> 慮作閭” 여기서 <食貨志>는 <漢書>24·下, <趙充國傳>은 <漢書>69, <溝洫志>는 <漢書>29, <河

K C I

渠書>는 <史記>29이다.

‘대략’ 또는 ‘대충’의 뜻인 ‘無慮에 주를 달면서 ‘無를 ‘없다’, ‘慮를 ‘헤아리다’로 본 안사고의 풀이가 잘못되었음을 논증하였다. 물론 안사고의 풀이도 결과적으로는 ‘대략’ 또는 ‘대충’의 의미에 가까워지지만, 그 접근 방식이 오류라는 점이다. ‘無慮’의 ‘慮’자가 ‘聞’로도 적히고 그 글자 하나만으로도 ‘대략’ 또는 ‘대충’의 의미로 쓰여진바 있듯이, ‘無慮’는 각 글자의 통상적인 의미와 관계없이 첩운이라는 음운관계로 긴밀하게 결합된 한 덩어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왕념손은 이를 논증하면서 《漢書》의 <食貨志>와 <趙充國傳>의 용례를 제시하고, 여기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위의 인용문에 이어 수많은 예증을 끌어와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3. 同義複詞

왕념손은 동의관계에 주목하고 「언어」를 설명한 까닭에 쌍성 또는 첩운 등과 같이 연면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운 현상과는 무관한 경우도 그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현대중국어에도 쌍성도 첩운도 아닌 연면사의 용례가 없지는 않지만²¹⁾, 그 경우에도 ‘축리(妯娌)’, ‘마노(瑪瑙)’, ‘부용(芙蓉)’, ‘호접(蝴蝶)’, ‘편복(蝙蝠)’ 등은 偏旁과 같은 한자의 형태적 유사성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 그런데 왕념손이 「언어」의 예로 거론한 ‘의표(儀表)’를 보면 그런 유사성마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哀帝紀>에서 “황실의 모범이 되었다”(爲宗室儀表)고 하고 <酷吏傳贊>에서 “그들 중에서 청렴한 이는 충분히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其廉者足以爲儀表)고 했다. 내가 살펴보건대, 나무를 세워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을 ‘儀’라고 하고 또 ‘表’라고 한다. 《說文》에서 “櫪는 꺾대(鞵)이다. 표의 부가 ‘木’이고 표음부가 ‘義’인 형성자이다”고 했다. 경전에서 통상 ‘儀로

21) 邵敬敏 主編, 《現代漢語通論》(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1. 6), 119쪽 ‘非雙聲非疊韻’ 연면사의 용례로 ‘妯娌·‘瑪瑙·‘芙蓉·‘蝴蝶·‘蝙蝠’ 등을 들고 있다

적었다. 따라서 《爾雅》에서 “儀는 꾀대(翰)이다”고 했다. ……안사고가 <哀帝紀>에 주를 달 때는 “예의의 모범이 됨을 말한다”(言爲禮儀之表率)고 하고, <酷吏傳>에 주를 달 때에는 “분명히 드러낼 만한 몸가짐이 있는 것을 말한다”(謂有儀形可表明者)고 했다. 글자만 보고 대충 뜻을 짐작한 것이다. 그리고 주가 각기 다른 것은 다 ‘儀와 ‘表가 같이 꾀대임을 알지 못하고 또 ‘儀가 ‘儀의 가차자인 것을 알지 못한 까닭 때문이다.²²⁾

왕념손은 안사고가 ‘儀表’를 풀이하면서 <哀帝紀>의 주에서는 “예의의 모범이 됨을 말한다”(言爲禮儀之表率)고 하고, <酷吏傳>의 주에서는 “분명히 드러낼 만한 몸가짐이 있는 것을 말한다”(謂有儀形可表明者)고 하여 ‘儀와 ‘表 두 글자를 각각 다른 뜻으로 보고 양자의 주석을 달리 한 것을 望文生義로 일축한다. 그리고 ‘儀와 ‘儀가 각기 ‘꾀대(翰)라고 풀이한 《說文》과 《爾雅》를 끌어와, ‘儀는 ‘儀의 가차자로서 ‘表와 同義임을 밝혀내었다.

이와 유사한 용례로 ‘경악(驚鄂)’을 들 수 있는데, 왕념손은 ‘鄂’ 역시 ‘驚과 同義로 ‘놀라다’는 뜻인바 결코 안사고가 <霍光傳>의 주석에서 풀이한 것처럼 “지장을 받아 순종하지 않다”(阻礙不依順)라는 별개의 뜻은 아니라고 했다.²³⁾ 이 두 가지는 순전히 의미적 유사성에만 주목하여 두 글자의 동의 관계를 거론한 것으로, 음운적 유사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22) <漢書雜志>16·2b: “<哀紀>云 ‘爲宗室儀表’ <酷吏傳贊>云 ‘其廉者足以爲儀表’ 念孫案, 立木以示人謂之儀, 又謂之表. 《說文》: ‘儀, 榦也. 從木義聲. 經傳通作儀’ 故《爾雅》云: ‘儀, 榦也.’ ……師古注<哀紀>則云: ‘言爲禮儀之表率’, 注<酷吏傳>則云: ‘謂有儀形可表明者.’ 望文生義, 而注各不同, 皆由不知儀表之同爲立木, 又不知儀爲儀之借字故也.” 여기서 <哀紀>는 《漢書》11의 <哀帝紀>이고, <酷吏傳贊>은 《漢書》90 <酷吏傳>의 贊이다.

23) <漢書雜志>16·8a 참조.

이상 3가지 경우의 논의를 통해서 왕념손이 말한 「언어」는 공통적으로 두 글자의 동의관계에 주로 근거해서 정립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언어」의 마지막에서 “대체로 이와 같은 예들은 모두 뜻이 같은 글자를 취하여 억지로 구별한 것으로, 깊이 추구해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본령에서 멀어지게 되니 이른바 큰 도는 갈림길이 많아 찾는 양을 잃어버리듯 진리를 터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²⁴⁾고 한 데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된다.

물론 同義關係를 기초로 하면서도 음성을 중시하는 훈고 경향에서 쌍성과 첩운 등의 음운關係를 통해 「언어」의 의미를 규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간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언어」를 구성하는 두 글자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데 초점이 있지 그것들을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의 단순어로 보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왕념손이 제시한 「언어」는 聯綿詞(곧 複音單純詞)와 同義複詞의 두 종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²⁵⁾ 따라서 왕념손이 최초로 제시한 언어라는 용어를 놓고 볼 때, 그것을 언면사와 동의어로 이해하는 입장²⁶⁾보다는, 六書 가운데 形聲字가 가장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속에는 첩자와 쌍성·첩운이 가장 많다고 한 朱自淸의 견해²⁷⁾가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V. 「連語」와 <漢書> 文章의 特徵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왕념손이 10종의 역사서와 제자서를 대상으로

24) <漢書雜志>16·8a: “凡若此者, 皆取同義之字, 而彊爲區別 求之愈深 失之愈遠, 所謂大道以多岐亡羊者也”

25) 郭在貽, <訓詁學>(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6. 10), 204-205쪽 참조.

26) 程希嵐·吳福熙 主編, <古代漢語>(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4. 8), 89쪽 “聯綿詞, 又稱連語”

27) 朱自淸, <朱自淸古典文學論文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7), 556쪽 “連語似乎以疊字與雙聲疊韻爲最多, 和六書裏以形聲字最多相似”

진행한 방대한 교감 및 훈고 작업의 결과인 《독서잡지》를 보면, <한서잡지>를 제외한 기타 부분에는 「연어」를 독립시켜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어」와 유사한 용례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²⁸⁾

이는 중국 문장어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한자라는 문자의 속성상 단음절어를 기본으로 출발한 고대 중국의 문장어가 東漢으로 기점으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 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독서잡지》에 교감 및 훈고의 대상으로 포함된 서적을 놓고 볼 때, 동한 문장의 駢儷化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두드러진 예가 바로 《史記》와 《漢書》의 차이이다. 郭預衡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장 스타일 면에서 《사기》는 아직 ‘홀으로 된 문장이나 어구’(單句隻語)가 많아 여전히 先秦 문장의 어기인 반면에, 《한서》의 문장은 의식적으로 문사나 어구를 다지는 데 주력한 것 같아 ‘ 짝을 이룬 어구나 문장(駢辭儷句)이 자못 많다.²⁹⁾

이는 漢代의 대표적 두 역사서인 《사기》와 《한서》는 문장이나 어구의 구성 방식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가 ‘홀으로 된 문장이나 어구’(單句隻語)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 짝을 이룬 문장이나 어구’(駢辭儷句)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기실 산문사가의 이런 종합적 평가가 나오기 이전에 朱自淸이 일찍이 《사기》가 散體의 行文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한서》는 辭賦의 영향을 받아 排偶句를 많이 쓰고 문장의 길이도 길어졌다고 진단한 바 있다.³⁰⁾ 朴宰雨 교

28) <한서잡지>에는 「連語」 이외에도 ‘猶豫(1·20b), ‘弗鬱(7·25a), ‘縣貌(10·21b), ‘阿邑’(14·8a: 王念孫이 직접 雙聲字라고 밝히고 있음) 등의 용례가 보이지만, 기타 부분에는 「連語」와 유사한 것으로 <荀子雜志>에서 ‘汙漫(2·40b)과 ‘路寔(5·9a), <淮南內篇雜志>에서 ‘踳蹶(19·6a) 등 극소수의 예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29) 郭預衡, 《中國散文史》上(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5), 197 쪽 “在行文方面, 《史記》尚多單句隻語, 還是先秦文章的語氣; 而《漢書》之文, 則似乎有意於辭語的錘煉, 頗多駢辭儷句.”

수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사기》와 《한서》의 造句用字上的 특징을 언급하면서 《사기》에는 散句가 많고 《한서》는 俳偶의 경향을 내보인다는 斯界의 공통된 견해에 동의를 표시한 뒤,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班固가 유명 辭賦 작가라는 데서 찾고 있다.³¹⁾

「연어」는 《한서》에 나타나는 行文上的 駢偶化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미시적 자질의 하나로 거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연어」는 기본적으로 2음절이 주조를 이루는바, 두 글자가 짝을 이루어 한 쌍을 구성한 단어이다. 왕념손의 《독서잡지》를 통해서 유독 《한서》에 「연어」가 많다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한서잡지> 「연어」에 거론된 23 개의 「연어」 중에서 《사기》에도 보이는 용례는 다음의 5가지이다.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에 편리하도록 《사기》의 해당 원문을 찾아 번역문과 함께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陵夷] : 亦作 陵遲

《史記·高祖功臣侯者年表》: “始未嘗不欲固其本, 而枝葉稍陵夷衰微也”
(에당초에 일찍이 그 근본을 공고히 하고자 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지엽이 점점 (날로) 쇠락하여 쇠하고 미약해졌다.)

《史記·張釋之馮唐列傳》: “以故不聞其過 陵遲而至於二世, 天下土崩”
(이런 까닭 때문에 (황제가) 자신의 과오를 듣지 못함에 (날로) 쇠락해져 이제 황제(胡亥)에 이르러 천하가 흩처럼 완전히 붕괴되었다.)

《漢書·成帝紀》: “帝王之道, 日以陵夷.” (제왕의 도가 날로 쇠락해져 갔다.)

30) 朱自清, 《朱自清古典文學論文集·經典常談》(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7), 667쪽 참조. 그리고 주자청은 <中國文的三種型>이라는 글에서 辭賦家들이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連語를 즐겨 썼다는 郭紹虞의 견해를 검토하면서 그것이 당시의 口語를 채용한 결과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같은 책, 556-557쪽 참조.

31) 朴宰雨, 《「史記」「漢書」比較研究》(北京: 中國文學出版社, 1994. 8), 366-368쪽 참조.

[寢尋]: 亦作‘侵尋’

《史記·孝武本紀》: “天子始巡郡縣 侵尋於泰山矣。” (천자는 군현을 순수하기 시작하여 점점 태산 일대로 접근하였다.)

《漢書·郊祀志》: “上始巡幸郡縣 寢尋於泰山矣。” (황상은 군현을 순행하기 시작하여 점점 태산 일대로 접근하였다.)

[營惑]: 亦作‘營或’

《史記·孔子世家》: “匹夫而營惑諸侯者罪當誅!” (필부로서 제후를 미혹시키는 자는 죄가 주살에 해당한다.)

《漢書·吳王濞傳》: “御史大夫朝錯營或天子。” (어사대부인 조조가 천자를 미혹시켰다.)

《漢書·劉向傳》: “所以營或耳目, 感移心意, 不可勝載” (눈과 귀를 미혹시키고 마음과 뜻을 움직이게 하는 바를 이루 다 기재할 수 없다.)

《漢書·淮南王安傳》: “營惑百姓。” (백성을 미혹시켰다.)

[魁梧]: 亦作魁吾·‘魁梧’

《史記·留侯世家(論)》: “余以爲其人計魁梧奇偉, 至見其圖, 狀貌如婦人好女。” (나는 이 사람이 대체로 장대하고 기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화상을 봄에 이르니 얼굴 모양이 부인이나 미녀와 같았다.)

《漢書·張良傳(贊)》: “以爲其貌魁梧奇偉, 反若婦人女子。” (그 모양이 장대하고 기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부인이나 여자와 같았다.)

[留落]: 亦作‘牢落’

《史記·衛將軍驃騎列傳》: “然而諸宿將常坐留落不遇。” (그러나 여러 경험이 많고 노련한 장군들은 늘 불우하여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과오를 범했다.)

《漢書·衛青霍去病傳》: “然而諸宿將常留落不耦。” (그러나 여러 경험이 많고 노련한 장군들은 늘 불우하여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

이중에서 《사기》와 《한서》의 내용이 동일한 용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문장과 연관지어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寢尋’의 경우를 보면 왕념손은 ‘寢’을 ‘점점’(漸), ‘尋’을 ‘나아가다’(就)로 풀이한 안사고의 주석이 오류

임을 밝히고, 《사기》에 ‘侵尋’으로 적힌 예를 끌어와 ‘寢과 ‘侵’이 음가가 같은 관계로 서로 통용된다고 했다.³²⁾ 왕념손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寢尋과 ‘侵尋’은 둘 다 침운의 연면사라고 한 셈이다. 그런데, 《사기》와 《한서》의 해당 원문에서 서로 차이 나는 대목은 ‘天子가 ‘上’으로 ‘巡’이 ‘巡幸’으로 바뀐 것뿐이다. ‘天子’와 ‘上’이 모두 漢武帝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 史書의 용어 선택상의 관례라고 볼 때, 관심을 끄는 것은 《사기》의 ‘巡’이 《한서》에서 ‘巡幸’으로 바뀌어 있는 점이다. 물론 《사기》도 두 구절이 모두 6글자로 되어 있어 외견상 매우 가지런한 느낌을 주지만, 《한서》는 ‘天子’를 표현의 관례를 좇아 ‘上’으로 바꾼 뒤에 여섯 글자의 기본 구식을 유지하기 위해 ‘巡’을 ‘巡幸’이라는 2음절 복음사로 바꾸어, 뒤의 목적어인 ‘郡縣과 더 잘 어울리는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로써 뒤이어 나오는 ‘寢尋 및 ‘泰山이라는 2음절 복음사와도 호응하여 두 구절에 4개의 2음절 복음사가 쓰여진 구조를 이루고 있다.

‘魁梧’의 경우를 보자. 왕념손은 안사고처럼 ‘梧를 ‘놀라 깨닫다(驚梧로 풀이하게 되면 ‘장대한 모양’(大貌)을 뜻하는 ‘魁’와 뜻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梧 역시 ‘犬의 뜻임을 揚雄의 《方言》을 끌어와 논증하였다.³³⁾ 그런데 留侯인 張良의 외모와 관련한 《사기》와 《한서》의 기술 부분을 보면, 두 사서의 문장 특징이 매우 잘 나타난다. 《사기》가 3구절의 參差不齊한 비교적 자유로운 句式인 반면에 《한서》는 앞의 ‘以爲’를 제외하면 6자구의 두 구로 정제되어 있고, 그 내적 리듬도 각각 2음절씩 매우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연면사가 《한서》 문장의 駢偶의 특성과 매우 잘 호응하여, 그런 문장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자질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留落’을 보자. 왕념손은 안사고가 ‘留落의 ‘留를 ‘머물다 · 체류하다’(遲留)로, ‘落을 ‘추락하다 · 뒤떨어지다’(墜落로 풀이한 것은 잘

32) 《史記索隱》에 “侵尋卽浸淫也.”라고 한 바대로 ‘侵尋은 또 ‘浸淫과 통하는데, 《漢書·食貨志下》에 “吏不能禽而覆蔽之 浸淫日廣”이란 표현이 보인다

33) <漢書雜志>16·6b: “魁梧, 皆大也. 梧之爲言吳也. 《方言》曰: ‘吳, 大也.’”

못이라고 간주하고, 이 두 글자가 쌍성자로 서로 다른 뜻으로 나뉘어질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 고서에서 근거를 끌어와 ‘留落이 음가가 유사한 관계로 ‘牢落’·‘流落’과 서로 통용됨을 밝혔다. 《사기》와 《한서》의 용례에서 《사기》에 보이는 ‘연좌되다·걸리다’는 뜻의 ‘坐’자가 《한서》에서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예는 《한서》가 의미상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군더더기를 없애고 《사기》를 매우 잘 요약하였음을 나타내는 점³⁴⁾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위의 5가지 용례를 제외하면 다른 18개 「언어」는 《사기》에 보이지 않는다.³⁵⁾ 따라서 양자의 직접 대비는 불가능하지만, 《한서》에서 쌍성·첩운 등 음운관계로 의거한 것이든 아니면 동의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든 간에 언어의 용례가 많이 쓰인 점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한서잡지>에서 거론한 23개 언어가 《시경》과 《초사》 등의 운문체 작품에 더러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사기》를 위시한 《한서》 이전의 산문체 서적에는 《淮南子》 이외에는 거의 드물게 보이고, 《한서》의 여러 편에 가장 많이 출현하며 후대 《文選》에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이는 《한서》를 기점으로 중국 문장어의 한 변화, 곧 2음절을 기조로 하는 어휘의 증대 및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일어난 산문 문장의 駢偶化라는 현상이 대두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를 漢語史的 측면에서 말하면, 上古 漢語에서 中古 漢語로 넘어가는 교량시기인 동한대에 나타난 언어 사용의 흔적이 엄정한 고전 읽기에 필생의 정력을 쏟은 왕념손이라는 고증학자의 눈에 포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4) 《한서》의 상당 부분은 직접 《사기》에서 베껴온 것인데, 이식 과정에서 일정한 가공을 거쳐 더욱 간명하고 규범적인 문장으로 바꾸어놓은 예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韓兆琦·呂伯濤, 《漢代散文史稿》(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6. 5), 227-228 쪽 참조.

35) 이 판단은 필자가 《사기색인》이나 《漢語大詞典》 등을 통해서 그 용례를 확인한 바에 근거한다.

VI. 結 論

왕념손은 한자의 형체보다는 음성을 더욱 중시하는 학문 경향에서 수많은 고전에 대해 교감과 의미 변석을 시도하여 전인의 수많은 오류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어놓았다. <한서잡지>에 나타난 「연어」의 존재와 그것을 통해본 중국 문장어의 변화와 관련한 성취는 다음 세 가지로 간추려진다.

첫째, 왕념손은 세밀한 《한서》 읽기 작업을 통해 그 속에서 처음으로 「연어」의 존재를 확인하고, 23개에 달하는 「연어」를 찾아내어 각각의 용례에 대하여 전인의 훈고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새로운 의미 풀이를 가하였다.

둘째, 왕념손이 제시한 「연어」의 개념은 쌍성과 첨운 등 음운관계에 의한 2음절 單純詞 이외에, 두 글자의 同義관계에 기초한 2음절 複詞도 함께 아우르고 있다. 그런데, 「연어」를 구성하는 두 글자를 동의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훈고학적 근거가 있는 관점이기는 하지만, 각 글자의 의미 자체에 국한하여 「연어」를 해석한 입장은 분명 그의 한계라 여겨진다. 즉, 두 글자의 동의적 관계를 넘어 「연어」를 한 덩어리의 단순사로 파악하는 현대적인 연면사의 개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셈이다. 다만 왕념손이 제시한 「연어」의 용례들이 연면사의 현대적 개념에 완전히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중국 문장어의 복음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 문장이 동한 이후로 점차 駢儷化하여 複音詞와 偶句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점을 상기할 때, 《한서》 부분에만 유독 「연어」라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 의미를 상고한 것은 중국 어휘와 문장 발전의 역사적 실제와도 부합하는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를 《사기》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변화의 발자취가 더욱 분명하게 실증되는바, 「연어」의 존재 및 활용은 駢偶化한 《한서》 문장의 특징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서잡지>를 통해 제기된 「연어」가 중국 문장의 변러화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지를 좀더 심도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기》와 《한서》의 더 많은 편장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비교 검증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王念孫, 《讀書雜誌》(同治九年金陵書局刻本; 北京: 中華書局), 1991. 10.
王念孫·王引之, 《廣雅疏證》(《續修四庫全書本》: 上海圖書館藏清嘉慶元年刻本)
司馬遷, 《史記》(標點校勘本 景印文化社影印本)
班 固, 《漢書》(標點校勘本 景印文化社影印本)
《史記索引》(標點校勘本: 景印文化社影印本)
《漢書索引》(標點校勘本: 景印文化社影印本)
王利器 主編, 《史記注譯》全四冊(西安 三秦出版社), 1988. 11.
張 烈 主編, 《漢書注譯》全四冊(海口: 海南國際新聞出版中心), 1997. 1.
郭預衡, 《中國散文史》上(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5.
郭在貽, 《訓詁學》(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6. 10.
朴宰雨, 《「史記」「漢書」比較研究》(北京: 中國文學出版社), 1994. 8.
邵敬敏 主編, 《現代漢語通論》(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1. 6.
王 力 著, 李鍾振·李鴻鎮 共譯, 《中國言語學史》(大邱 啓明大出版部, 1983).
李永朱, 《古漢語同義語研究》(서울대 문학박사 학위논문), 1991.
程希嵐·吳福熙 主編, 《古代漢語》(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4. 8.
朱自清, 《朱自清古典文學論文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7.
韓兆琦·呂伯濤, 《漢代散文史稿》(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6. 5.
許威漢, 《先秦文學及語言例論》(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4. 8.

<中文提要>

王念孫堅持漢字音重於形的治學立場，對許多典籍做了校勘和語意辨釋，糾正了前人的諸多謬誤，開闢了一條新的途徑。他在<漢書雜誌>中提出「連語」概念，並對它加以詮釋，從中可以看出中國書面語的演變趨勢。其成就大約有如下三點。

首先，王念孫通過精讀《漢書》，最早確認「連語」的存在，從中找出多達23個「連語」實例，並對各個用例加以新的解釋，糾正了前人在訓詁上的謬誤。

其次，王念孫提出的「連語」概念除了包括按雙聲和疊韻等音韻關係形成的雙音節單純詞之外，還包括以兩個字的同義關係為基礎的雙音節的複合詞。不過，雖然將組成「連語」的兩個字看成同義關係在訓詁學上是有根據的，但是僅僅局限於每個字的字意本身來解釋「連語」，其方法還是有局限性的。也就是說，他所謂的「連語」並不完全符合現代聯綿詞的概念。現代聯綿詞超越兩個字的同義關係，把聯綿詞看成一個單純詞。然而，無論王念孫提出的「連語」的用例是否完全符合現代聯綿詞的概念，但把「連語」看做顯示中國書面語趨於複音化的指標，似乎沒什麼問題。

最後，中國文章自東漢以後逐漸趨於駢麗化，複音詞和偶句飛躍地增加。王念孫在談《漢書》時，另設「連語」之目，並對其意進行詳查，這適應了中國詞彙和文章發展的歷史演變的實際情況，是很有意義的。尤其是在把《漢書》和《史記》比較時，就可以更分明地證實中國文章變化的軌迹。因此，「連語」的存在及其活用，是能讓我們更分明地確認《漢書》駢偶化的文章特徵的根據之一。

若要進一步證實<漢書雜誌>提出的「連語」是否能成為中國文章的駢麗化的主要指標，還要對《史記》和《漢書》的篇章做更全面、更具體的比較檢驗工作。

주제어: 王念孫, 讀書雜誌, 連語, 聯綿詞, 漢書, 史記, 駢偶, 散體, 文章語